

2019년 HIV/AIDS 신고현황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결핵·에이즈관리과 정윤희, 차정옥, 김태영, 심은혜*

*교신저자 : ehshim001@korea.kr, 043-719-7310

초 록

2019년 한해 1,222명의 HIV 감염인이 신규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내국인은 82.2%(1,005명), 외국인인 17.8%(217명)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90.9%(1,11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5.8%(438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순이었다. 신규 감염인이 선별검사를 받은 기관은 병·의원인 61.6%(753명), 보건소가 30.0%(367명)이었다. 신규 감염인이 HIV 검사를 하게 된 동기는 질병 원인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가 35.9%(332명)로 가장 많았고, 감염경로는 응답자의 99.8%(821명)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응답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젊은 연령층, 감염 취약군을 대상으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2030년까지 AIDS 유행 종식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할 것이다.

주요 검색어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병 감시

들어가는 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체계, 특히 CD4+ T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이다. HIV 감염에 의한 면역력 약화로 각종 암 또는 기회감염이 나타난 상태를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라고 한다.

HIV는 여전히 전 세계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HIV 예방, 진단, 치료, 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HIV 감염은 관리가 가능한 만성 건강상태가 되었고, HIV 감염인이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1].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70만 명의 신규 감염인이 발생하였고, 69만 명이 AIDS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3,800만 명의 감염인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2]. 전 세계 신규 감염인 발생은 감소 추세로, 1998년 정점 이후 40% 감소, 2010년 대비 23%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동·남아프리카에서의 상당한

감소에 의한 것이다. 대륙별 신규 감염인 발생 추세는 카리브해, 서·중앙아프리카, 서·중앙유럽과 북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010년 대비 각 29%, 25%, 15%, 12% 감소한 반면 중동·북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2010년 대비 각 22%, 21% 증가하였다[3].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제3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HIV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검안 사실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는 이를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다. 또한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기관은 HIV 감염인 발견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다[4].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이하, HIV/AIDS) 발견 신고 정보는 분석을 거쳐 매주 '주간 건강과 질병'에 잠정 통계를 발표하고, 매년 '감염병 감시 연보'와 'HIV/AIDS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정 통계를 공표한다.

이 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확인검사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HIV 감염 양성 진단 건 중, 2019년에 진단된 건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몸 말

2019년 신규 HIV 감염인은 1,222명으로 전년대비 1.3%(16명) 증가하였는데, 이 중 내국인은 1,005명(82.2%)으로 전년대비 1.6%(16명) 증가하였고, 외국인인 217명(17.8%)으로 전년과 같았다.

신규 감염인의 성별은 남자 1,111명, 여자 111명으로 남자가 90.9%를 차지하였고, 내국인은 남자가 94.7%(952명), 여자 5.3%(53명), 외국인인 남자 73.3%(159명), 여자 26.7%(62명)를 차지하였다.

신규 감염인의 연령은 20대가 35.8%(438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7.9%(341명), 40대 16.5%(202명), 50대 10.6%(129명), 60대 5.0%(61명), 10대 2.5%(31명), 70대 이상 1.6%(20명) 순이었다. 그중 20~40대 신규 감염인의 구성비는 80.3%로 전년 대비 2.8%p

증가, 2014년 대비 6.6%p 증가하였다. 내·외국인을 분류하면 내국인은 20대가 36.3%(365명)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은 30대가 38.2%(83명)로 가장 많았다.

신규 감염인 발견을 신고한 기관은 병·의원 61.6%(753명), 보건소 30.0%(367명), 혈액원 4.2%(51명)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 기관 구성비 추이를 보면 병·의원과 혈액원 신고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보건소 신고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였다(2014년 대비 병·의원과 혈액원 각 7.6%p, 2.4%p 감소, 보건소 7.9%p 증가).

신규 감염 내국인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에 응답한 감염인은 81.9%(823명)로, 감염경로 응답률은 전년대비 1.1%p, 2014년 대비 21.5%p 증가하였다. 감염경로는 감염인의 답변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응답한 대부분(99.8%, 821명)이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었고, 마약주사 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이 0.2%(2명)이었다.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응답한 남자 감염인(777명) 중 56.7%(442명)가 동성 성 접촉에 의한 감염, 43.0%(335명)가 이성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었고, 여자 감염인은 모두(44명) 이성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신규 감염 내국인 역학조사 결과 검사동기에 응답한 감염인은 92.1%(926명)로 검사동기 응답률은 전년대비 0.3%p, 2014년 대비 22.9%p 증가하였다. 검사동기는 조사된 사례 중 질병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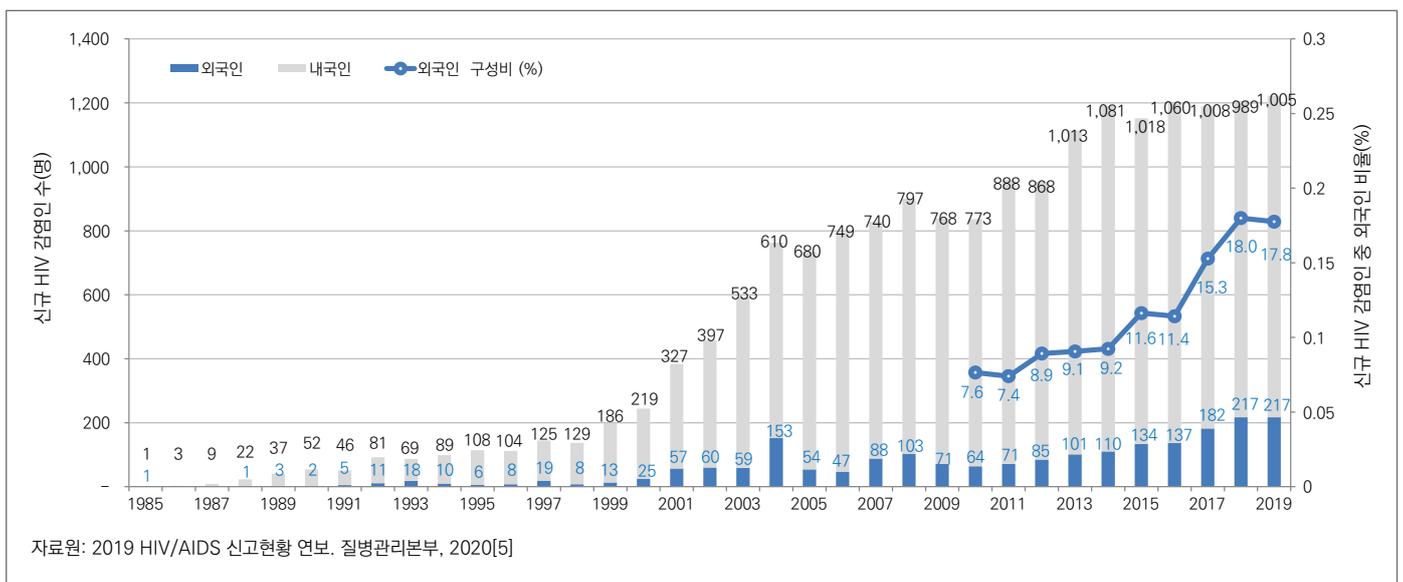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신규 HIV 감염인 수, 1985~2019

표 1. 신규 HIV 감염인 신고현황, 2018~2019

단위: 명

구분	2018			2019		
	전체	내국인	외국인	전체	내국인	외국인
계	1,206	989	217	1,222	1,005	217
성별						
남자	1,100	945	155	1,111	952	159
여자	106	44	62	111	53	58
연령						
0~9	0	0	0	0	0	0
10~19	20	19	1	31	29	2
20~29	395	336	59	438	365	73
30~39	328	236	92	341	258	83
40~49	211	171	40	202	158	44
50~59	161	140	21	129	116	13
60~69	61	57	4	61	59	2
≥70	30	30	0	20	20	0
선별검사기관						
병·의원	716	593	123	753	613	140
보건소	382	301	81	367	309	58
기타	108	95	13	102	83	19

자료원: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 질병관리본부, 2020[5]

확인을 위한 검사에서 발견된 경우가 35.9%(332명)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HIV 검사를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한 검사(이하, 자발적 검사)에서 발견된 경우가 29.5%(273명), 수술·입원 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례검사서 발견된 경우가 18.9%(175명),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경우가 11.0%(102명) 이었다.

맺는 말

우리나라의 2019년 신규 HIV 감염인은 1,222명이었으며, 5년 평균 1.5% 증가하였다. 내국인은 5년 평균 0.3% 감소하였으나, 외국인은 5년 평균 12.8% 증가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 감염인의 연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0대 감염인 구성비가 가장 많았으나, 2011년 이후 매년 20대가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했고, 2019년 35.8%로 구성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2011년 대비 11.8%p 증가, 2014년 대비 5.0%p 증가). 또한 20~40대 연령 구성비가 점차 증가해 2019년에 80% 이상을 차지하였다(2014년 대비 6.6%p 증가).

신규 감염 내국인의 역학조사 결과 감염인이 응답한 감염 경로의 99.8%는 성 접촉이었고, 남성 감염인 중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응답한 사람의 구성비가 56.7%로 2014년 대비 10.8%p 증가하였다. 수직감염이나 수혈·혈액제제에 의한 감염, 의료행위 중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국내 감염의 대부분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AIDS 유행 종식을 목표로 선언하였고[6], WHO는 2020년까지 90-90-90(감염 인지율 90%, 치료율 90%, 바이러스 억제율 90%)을 중간 목표로 설정하여 HIV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7]. UNAIDS는 2019년 81%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 감염사실을 아는 사람 중 82%가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를 받은 사람 중 88%가 바이러스 억제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2023년까지 감염 인지율 90%, 치료율 90%, 치료효과 90%를 1단계 목표로 설정하고 조기발견, 치료지원, 연구개발, 예방홍보 분야별 전략과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였고, 조기진단을 위해 검사 권고시기를 HIV 노출 의심일로부터 12주 이후에서 4주 이후로 단축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에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감염인의 정서지지와 복약순응도 향상 등 환자 관리를 강화하였고, 유튜브와 웹툰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개발로 젊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 홍보를 강화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정확한 HIV/AIDS 신고를 통해 확인된 젊은 연령층, 감염 취약군과 생존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인 2030년까지 AIDS 유행 종식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HIV/AIDS 신고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www.cdc.go.kr/npt) ☞ 발간자료 ☞ 감시연보)에서 열람 가능하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우리나라 신규 HIV 감염인은 남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신규 감염 내국인의 감염경로는 성 접촉이 대부분으로 수직감염과 수혈·혈액제제에 의한 감염, 의료행위 중 감염체액 노출에 의한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신규 감염인의 연령 구성비는 20~40대가 점차 증가하여 전체 감염인의 80%이상을 차지하였고, 주된 감염경로인 성 접촉 중 남성의 동성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 50%를 초과하였다.

③ 시사점은?

신규 감염인 대부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20~40대 젊은 연령층 구성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HIV 감염 취약군과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WHO. Fact sheet; HIV/AIDS, 2020.
2. UNAIDS. Fact sheet; 2019 Global HIV statistics, 2020.
3. UNAIDS. UNAIDS DATA 2020, 2020.
4. 질병관리본부. 2019 HIV/AIDS 관리지침. 오송: 질병관리본부. 2019.
5. 질병관리본부. 2019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오송: 질병관리본부. 2020.
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7. WHO. Global Health Sector Strategy on HIV 2016–2021, 2016.

Abstract

HIV/AIDS notifications in Korea, 2019

Jung Yoonhee, Cha Jeongok, Kim Taeyoung, Shim Eun Hye
Division of TB and HIV/AIDS Control, KCDC

In Korea, the number of notified new HIV infection cases has increased to 1,222 in 2019 (1,206 in 2018). Among the total cases recorded, males accounted for 1,111 cases (90.9%) and females accounted for 111 of the cases (9.1%). In addition, the 20-29-year-old age group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cases 35.8% (438 cases), followed by the 30-39-year-old age group, and the 40-49-year-old age group. In terms of HIV detection, 753 cases (61.6%) were detected in hospitals and 376 cases (30.3%) were detected in public health centers. This report found that to confirm the cause of illness in medical institutions was the most common reason to take HIV test, accounting for 35.9% (332 cases). The 99.8% of respondents answered their route of transmission as "sexual contact."

This report recommende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to strengthen HIV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olicies targeting people living with HIV, younger age groups and high-risk groups. In addition, the reported concluded that the KCDC,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healthcare community,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end the AIDS epidemic by 2030.

Keyword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Surveil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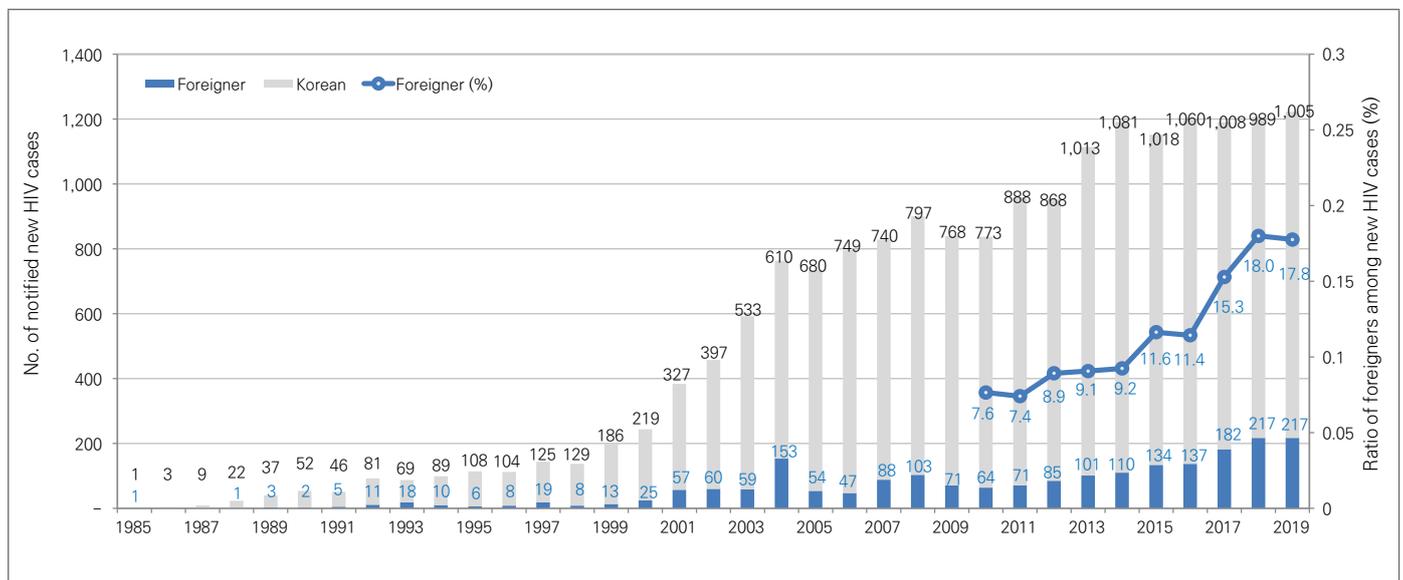


Figure 1. Notified New HIV/AIDS cases, 1985–2019

Source: 2019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KCDC, 2020 [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otified HIV/AIDS cases, 2018–2019

Unit: person

	2018			2019		
	Total	Korean	Foreigner	Total	Korean	Foreigner
Total	1,206	989	217	1,222	1,005	217
Sex						
Male	1,100	945	155	1,111	952	159
Female	106	44	62	111	53	58
Age						
0–9	0	0	0	0	0	0
10–19	20	19	1	31	29	2
20–29	395	336	59	438	365	73
30–39	328	236	92	341	258	83
40–49	211	171	40	202	158	44
50–59	161	140	21	129	116	13
60–69	61	57	4	61	59	2
≥70	30	30	0	20	20	0
Screening site						
Clinic or Hospital	716	593	123	753	613	140
Public health center	382	301	81	367	309	58
Others	108	95	13	102	83	19

Source: 2019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KCDC, 2020 [5]